

忠北地域 典籍·古文書 調査現況과 課題

고수연*

-
- I. 지역에 있는 전적·고문서 조사의 필요성
 - II. 충북지역 전적·고문서의 조사현황
 - III.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 및 정리의 과제
-

I. 지역에 있는 전적·고문서 조사의 필요성

典籍과 古文書는 역사학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史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료로서의 古典籍에는 그 시대의 정치·사회·경제적 실상과 관련인물 또는 단체들의 이면을 규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전적과 고문서의 조사·정리는 객관적인 한국사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한국사 연구는 正史나 年代記 같은 중앙의 官撰史料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어 중앙 중심, 지배층 중심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전적과 고문서는 바로 이러한 편향적인 한국사 연구를 지양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문화 서술을 가능케 하는 자료이다.

즉 전적 중 각 지방의 私撰 邑誌類나 지역 인물의 文集類는 관찬사료의 오류와 누락을 수정·보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또 고문서 자료는 유일무이한 일차사료로서 작성의 주체와 작성목적, 작성과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편찬 기록류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주관적 인식의 반영이 거의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전적·고문서의 특성은 한국사 일반 연구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지역 사회사 연구에 있어서 기본 목적이랄 할 지역적인 특수성을 구조적으로 실증하는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¹⁾ 즉 지역 지배세력의 지배구조와 운영, 기층민의 존재형태 등 지역사회의 구조와 변화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역 자료의 수집은 물론 그것의 종합적 연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충청북도 전적·고문서 조사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료의 조사와 목록화에만 한정되어 그 자료의 체계화와 활용방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전적과 고문서를 ‘史料’가 아닌 ‘文化財’로 구분하

* 충북대학교 강사

1) 이해준, 1997, 「지방고문서의 조사·수집과 과제」, 『고문서 연구』 11, 고문서학회. 56쪽.

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歷史性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우선 지금까지의 충북지역의 조사현황을 정리한 후 앞으로 사료로서 전적과 고문서의 조사 및 정리의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 및 정리의 한계점 보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려 한다.

II. 충북지역 전적·고문서의 조사현황

1. 1925년-1985년 조사²⁾

충청북도의 전적과 고문서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 朝鮮史編修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영동 19건, 보은 15건, 청주 8건, 괴산 25건, 제천 5건, 단양 26건, 음성 1건, 진천 38건, 충주 2건으로 모두 139건의 목록이 작성되었으나, 이 전적은 현전하는 경우가 적다.

첫 조사가 이루어진 뒤 50여년이 지나서야 1974년 國史編纂委員會의 지방 사료조사의 일환으로 제천군이 조사되어 15개소의 문중에서 153건의 자료가 조사되었다. 그 후 충주댐 건설계획에 따라 1979년 충북대박물관에서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로 1979년에 제천군 37건과 증원군 65건 등 모두 102건의 고문서가 조사되었으며, 1980년에 제원군 25건과 증원군 2건, 단양군 17건 등 총 44건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1984년 文化財管理局의 충청북도 일괄 목록 조사로 총 3,972점의 전적과 고문서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일부 대량 소장처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즉 충북지역의 전적·고문서 조사는 1920년대 처음 시작되었으나 1984년 문화재 관리국 목록조사 이전까지는 조사지역이 충청북도의 북단에 있는 제원·단양지역에 한정되었고, 정밀한 조사가 아니어서 소재파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4-5년의 문화재 관리국 조사 역시 충북전체를 대상으로 목록 조사만 하였고, 본격적인 조사는 일부만 진행한 후, 충북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계속 미루어져 왔다.

2. 1996년-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조사³⁾

1996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충북지역 전적조사 의뢰로 충북지역 사료조사위원이 중심이 되어 『충북지역 고문헌 자료의 조사연구』를 주제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주요 전적과 고문서류 71건 등 167건이 조사·복사되었다. 그 후 2000년에 「충북지역의 향약관련 자료수집」, 2001·2002년 「충북도내 향교소장 고문서 자료수집」, 2003년 「충청북도 서원 및 사우 고문서 조사사업」, 2004년 「충북 북부지역 서원·영당 자료의 조사수집」이 진

2) 차용걸, 1997, 「충청북도 지역의 고서 조사현황」, 『충청북도의 고서』 1책, 충청북도·충북향토사협의회 참조.

3) 김현길, 2006, 「충청북도 동산문화재의 조사현황」, 『2006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청원군·옥천군』.

행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제천시 근현대사 자료조사, 2005년 단양군·괴산군 근현대사 자료조사, 2006·2007년 충주시 근현대사 자료조사가 이루어 졌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기본 개념아래 이와 같이 매년 특수 소장처 별로 조사하였으며, 사료의 정밀촬영을 기본으로 하였다.

3. 1997년-2004년 충북향토사협의회 조사

이후 1997년-2004년 충청북도의 조사용역을 받아 충북향토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현지총괄조사를 시행하여 『충청북도의 고서』 제1책(총괄, 진천군편, 1997), 제2책(보은군편, 1999), 제3책(영동군편, 2000), 제4책(충주시편, 2001), 제5책(옥천군편, 2001), 제6책(음성군편, 2002), 제7책(괴산군편, 2002), 제8책(제천시편, 2003), 제9책(단양군편, 2003), 제10책(청주시편, 2004), 제11책(청원군편, 2004)이 발간되었다.

이 조사는 모든 전적과 고문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소장자를 먼저 확인하고 방문을 통해 카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8년에 걸쳐 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가 조사한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현황이다.⁴⁾

표 1 1997년-2004년 충북향토사협의회가 조사한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 현황

조사년도	조사지역	합계	전적	고문서	기타
1997	진천군	494	331	137	
	1차보완(2000,영동)	185	167	17	
	2차보완(2001,충추)	243	219	24	26
	3차보완(2002,음성)	39	35	3	
	합계	961	752	181	26
1999	보은군	890	788	96	6
	보완(2000,영동)	36	35	1	
	합계	926	823	97	6
2000	영동군	601	448	124	29
	보완(2001,옥천)	30	30		
	합계	631	478	124	29
2001	충주시	1,217	666	551	
	보완(2003,단양)	144	98	46	
	합계	1,361	764	597	
2001	옥천군	657	552	100	5
2002	음성군	536	351	183	2
2002	괴산군	783	614	167	2
2003	제천시	935	843	90	2
2003	단양군	272	222	50	
2004	청주시	2,148	1,933	207	8
2004	청원군	822	420	402	
총합계		10,032	7,753	2,198	81

4) 이 표는 『충청북도의 고서』 제1책(총괄, 진천군편, 1997) - 제11책(청원군편, 2004)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 조사로 전적은 7,753건, 고문서는 2,198건, 기타 81건으로 총 10,032건이 조사되었다. 이것은 1984-5년의 문화재 관리국의 목록조사로 밝혀진 3,972점 보다도 훨씬 많은 건수로 특히 현지조사를 통하여 목록화 하고 간단한 해제를 붙인 것으로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청주시가 2,14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충주, 청원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전적을 판종별·내용별로 구분한 것이다.⁵⁾

표 2 1997년-2004년 충북지역 전적의 내용별 현황

조사 지역	版種別 分類					內容別 分類					
	活字本	木版本	筆寫本	其他	合	經部	史部	子部	集部	其他	合
진천	13	25	117	11	160	29	32	39	55	11	160
보은	504	140	95	49	788	123	167	120	325	53	788
영동	119	78	207	44	448	36	115	116	151	30	448
충주	260	82	300	24	666	185	110	65	250	56	666
옥천	27	235	200	95	557	165	147	85	152	8	557
음성	31	138	141	41	351	113	81	17	117	23	351
괴산	60	245	241	68	614	189	117	92	193	23	614
제천	177	153	415	98	843	149	201	137	356	0	843
단양	48	59	165	0	272	70	42	48	56	0	222
청주	577	922	417	17	1933	479	468	501	480	5	1933
청원	86	88	237	9	420	80	140	83	117	0	420
계	1,902	2,165	2,535	456	7,753	1,618	1,620	1,303	2,252	209	7,753

전적의 판종별 현황을 보면 筆寫本이 가장 많다. 이는 경제적 연건이 어려워 빌려서 일일이 필사한 뒤 돌려보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내용별 현황을 보면 集部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양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이를 기리기 위한 문집이나 시문집이 많이 만들어져서 전해지는 까닭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고문서를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⁶⁾

표 3 1997년-2004년 충북지역 고문서의 내용별 현황

조사지역	戶口單子	明文	通文	立案	教牒	所志・所願類(上言)	書簡	試券	其他	계
진천	58	6			15	21				170
보은	21	41	4	2					28	96
영동	5	21	16		5	50			26	123

5) 이 표는 『충청북도의 고서』 제1책(총괄, 진천군편, 1997) - 제11책(청원군편, 2004)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단 각 군의 추가 조사분이 제외되었다.

6) 이 표는 『충청북도의 고서』 제1책(총괄, 진천군편, 1997) - 제11책(청원군편, 2004)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단 각 군의 추가분이 제외되었다.

옥천	14	1			33	25			27	100
충주	30			9	441		23		42	551
음성	11		20		71	10			71	183
괴산	35				65	31			36	167
제천			12		36	8			34	90
단양	19		2		2	3	1	10	11	50
청주	1		5		4	1	196			207
청원	101		8		153	43			97	402
계	295	69	136	11	825	192	220	10	372	2,198

고문서의 내용별 현황을 보면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토지 등을 내려주는 문서인 敎牒類가 고문서 총 2,198건 중 825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전하고 있다. 이는 가문의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가문마다 소중히 보관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戶口單子로 집안의 구성원과 소유노비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관의 확인을 받아 호주가 돌려받은 호구단자는 准戶口의 효력을 지니기도 하여 보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시군별로 8년에 걸쳐 10,000여 건 이상 현지 조사한 충북향토사협회의 조사는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리된 목록과 해제를 통해보면 각 지역 사족들의 산송사건을 기록한 소지류나 한말 의병 관련 문집류 등등은 한국사 일반이나 지역 사회사의 관련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역시 2-3줄의 간단한 해제를 붙이기는 하였으나, 크게는 소장처 중심의 목록작업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4. 2004년-2006년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조사

충북향토문화연구소에서 충청북도로부터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용역의뢰를 받아 충청북도내 분포된 전적과 고문서를 3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먼저, 2004년에 충주·진천군·음성군을 조사하였고, 2005년에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충주시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에 청원군·옥천군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1997년 이후 고서조사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충청북도 고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미리 정하여져 과업지시수가 정해졌다.⁷⁾ 그리고 그 대상에 한하여 세부 조사카드 작업과 사진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다량처 조사내용은 ‘소장유물현황표’의 양식에 소장처별 일반 동산문화재의 명칭·종류·수량 및 규격을 기재하고, 사진촬영 하여 사진을 첨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거기에다가 지정가치가 있는 중요문화재는 정밀조사 실시하였다.

7) 이 조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 미리 목록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지역 향토사가들을 모아놓고, 다량 소장처를 찾은 후에 소장처 별로 조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각 자료에 해제를 붙이고, 특히 소장처 별로 따로 해제를 작성했다는 것이 충청북도와는 다른 점이다.

표 4 2004-2006년 충북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조사년	조사지역	고문서	전적	기타	조사총량	과업지시수	비고
2004	충주시	516	508	19	1,043	915	+128
	진천군	108	181	4	293	254	+39
	음성군	33	224	5	328	230	+98
2005	괴산군	149	537	2	787	620	+167
	단양군	101	177		278	240	+38
	보은군	47	541	3	591	670	-81
	영동군	92	221		313	540	-227
	음성군	169	234		403	340	+63
	제천시	88	787	5	880	910	-30
	충주시	28	156	5	285	130	+155
2006	청원군	400	414		814	800	+14
	옥천군	6	400	101	511	415	+96
총합계		1,913	4,469	144	6,526	6,064	+460

조사과정에서 460건이 추가되었으나 1997년 고서조사에 대한 실상을 확인한다는 자체목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조사와 같은 목록과 사진작업의 중복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사과정에서 기왕의 조사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새로운 소장자가 몇 추가되었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다만 이 조사과정에서 소장자들에 대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실태 및 도난 화재예방시설 등 관리상황을 파악하도록 ‘일반 동산문화재 보존관리시설 실태조사표’가 마련되어 실제상황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항목 확인 내용이 수장고·금고·감시카메라·녹화기·경보기·자동소화시설·항온항습시설·감시모니터·감지기·무인경비시스템·상근관리인력 등으로 현재 대부분의 고문서가 보관되어있는 일반 가정에서 갖추어지기 어려운 항목이라 무의미했다.⁸⁾

Ⅲ.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 및 정리의 과제

전적·고문서는 특성상 한국사 일반 및 지역 사회사 연구를 구조적으로 실증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료의 수집은 물론 그것이 어떠한 연결구조로 종합될 수 있는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와 정리의 부분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조사과제

8)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6, 『2006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청원군·옥천군-』. 233쪽 참조.

현재까지의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현황을 정리해보면 첫째, 목록화의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둘째, 書誌學的 관심이 주를 이루고 있고, 셋째, 조사처의 집중도가 떨어지며, 넷째, 사료적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조사대상 선정이다.

이러한 충북지역의 조사현황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어떠한 지역의 자료가 단편적으로 많이 수집되어 목록화 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지니는지, 지역사와는 어떻게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동시에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해설 그리고 각 자료가 지닌 특기할 사항이나 직접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구논문, 수록된 자료집(문집, 영인본, 연구지 등)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서지학적 관심, 즉 일반적으로 전적 조사에서 활용하는 서명·판중·권책수·규격·행장수·저자·서문·발문·간기·사진·소장자·소장처 등의 기본적 서지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즉 이것이 역사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사는 서지학적 관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것은 전적과 고문서를 문화재로만 파악하고 있기에 겪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별로 조사되었으나 소장처별로 집중력 있게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①향교·서원·사우, ②누정·정려, ③증가·재실, ④사찰 ⑤개인소장 등으로 나누어 충북지역이 조사될 때 그 소장처별(유적·조직·집단)의 체계적 변화나 관련 자료의 범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업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료를 수집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전적의 경우 經部·史部·子部는 전적 조사 시 과반수 이상의 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료로서의 가치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조사 전 사전조사가 보다 충실히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조사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다면 좀 더 철저한 사료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상지역의 기존 읍지, 지역인사의 문집 등을 통하여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문조사’의 경우 그 가문의 현조와 입향조, 연관 있는 여타의 인물이나 가문 등을 미리 파악한다. 더 나아가 해당가문의 족보를 찾아 그 계통을 숙지한다. 한편 족보나 읍지 인물조에 기록된 ‘有文集’자에 대한 철저한 검색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⁹⁾

여섯째, 조사 시 소장처와 관련된 사항도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소장자가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전적과 고문서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도 기록되어야 한다. 이것은 추후 전적과 고문서를 어떻게 보존하여 관리하는 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현황은 조선사편수회·충북대박물관·국사편찬위원회·문화재관리국·충북향토사연구협의회·충북향토문화연구소 등에 의하여 몇 차례 전적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있어서 한국사 일반이나 지역 사회사의 일부로

9) 이해준, 2002, 「조선시대 지방인쇄문화의 성격-충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6·7합. 653쪽.

서 전적문화를 파악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자료정리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조사는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즉 ‘분석·정리연구물’이 아니고, 단순한 ‘수집 자료의 나열’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정리과제

지금까지의 충북지역 전적·고문서 정리는 각개 자료가 지닌 성격을 간단한 자료 내적인 검토로 축소·한정시켜 둠으로써 그것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사회구조 파악에까지는 진전되지 못했고, 또한 자료를 목적에 맞추어 확대·과장할 가능성이나 인접된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심도 있는 해석이 시도되지 못했다.

즉 전적·고문서가 ‘수집 자료의 나열’에서 벗어나 ‘분석·정리연구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자료의 수집과 내용파악이 일단락 된 뒤에도 이들 자료가 다음의 작업으로 연결되도록 다음과 같은 후속작업이 필요하다.¹⁰⁾ 즉 각 자료들의 개괄적인 성격을 정리하여 한국사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첫째, 자료를 시기별로 배열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시대별로 분류를 하여 보면 당시의 분위기와 문제점들을 유추하기가 쉽고, 많은 형태의 동시대 자료들을 서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안목도 생겨날 수 있다.

둘째, 자료를 주제·내용별로 배열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각 자료들 간의 성격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즉 자료의 상호관계와 선후의 차이, 변화상이 들어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료를 작성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방법도 필요하다. 서원자료, 향교자료, 문중자료, 사찰자료, 개인자료, 혹은 특정 유적자료를 구분하여 종합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각 작성주체별 역사를 정리한 후 이를 종합하는 것도 연구의 한 방법이 된다.

넷째, 전적의 경우 목록화에서 나아가 ‘내용색인작업’이 요망된다. 즉 내용의 세부목차 그리고 주목되는 지역사 관련 사항이 메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북의 어느 인물의 문집이 있다면, 그 세부목차를 작성함과 동시에 그 목차와 관련 있는 그 지역의 유적이거나 인물에 대한 첨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日錄類나 行狀·墓碣은 인물 연구에, 薦狀·通文 등은 당시의 사회상 연구에, 그리고 重修記·上樑文類는 유적의 시대적 변화상 파악에 기초자료가 된다. 그리고 이같이 전적정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행해졌던 유형적인 문화재 중심의 유적이해는 내용성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시기의 서로 다른 인물의 글들이 포착되므로써 변천사나 종합 문화사의 부면에서도 커다란 보탬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 연구자나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고 인력을 유인하고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0) 이해준, 1997, 「지방고문서의 조사·수집과 과제」, 『고문서연구』 11, 고문서학회. 66-67쪽 ; 이해준, 1999, 「조선시대 충북의 인쇄문화-출판의 성격과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충북향토문화 10. 73쪽 참조.

여섯째, 결국 충북지역 전적·고문서의 조사와 정리의 과제가 체계적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구별되는 충북 지역사료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료로서 전적·고문서의 조사·보존·정리·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를 넘어서 보존·정리·활용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즉 인멸위기에 처한 충북지역에 산재한 전적·고문서 등을 조사·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한다. 나아가 평판·배접, 디지털 촬영 등의 방법을 통해 영구보존하고, 탈초, 해제, 영인하여 학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관시설 미비로 인해 도난 등 자료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기탁 및 기증을 권유하여 자료의 영구 보존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단발적 조사보다는 충북 지역사료관이 건립되어 지속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충북대학교, 1982 『충주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박물관)
- 김현길 외, 1997 『충청북도의 고서 1(충팔·진천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현길 외, 1999 『충청북도의 고서 2(보은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현길 외, 2000 『충청북도의 고서 3(영동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이철재 외, 2001 『충청북도의 고서 4(충주시)』,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현길 외, 2001 『충청북도의 고서 5(옥천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현길 외, 2002 『충청북도의 고서 6(음성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현길 외, 2002 『충청북도의 고서 7(괴산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박인호 외, 2003 『충청북도의 고서 8(제천시)』,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김예식 외, 2003 『충청북도의 고서 9(단양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이해준 외, 2003 『(현장조사와 정리를 위한) 근현대 지방사료窓 열기』, 한국사연구회
원 보고자료집 7, (국사편찬위원회)
- 2003 『충북의 고인쇄문화와 사료조사 정리』, (청주시·충북향토문화연구소·국사편찬위원회)
- 박문열, 2004 『충청북도의 고서 10(청주시)』,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박문열, 2004 『충청북도의 고서 11(청원군)』,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4 『2004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충주시·진천군·음성군』.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5 『2005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충주시』.
- 충북향토문화연구소, 2006 『2006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보고서-청원군·옥천군』.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非指定 動産文化財 實態調査 學術用役 報告書 1-천안시·공주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 보고서 2-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7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 보고서 3-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

· 논문

- 중촌영효, 1929 「충북사료탐방기」, 『조선』 21.
- 윤병석, 1974 「충북 제천지구 사료조사보고」, 『지방사료조사보고서』, (한국사학회)
- 차용걸, 1988 「충북지역 전적조사의 현황」, 『호서문화연구』 7.
- 이해준, 1991 「조선시대 지방사자료의 수집과 정리」(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료조사위원회 특강)
- 이해준, 1992 「지방사연구에 있어서 고문서 자료의 활용」, 『정신문화연구』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해준, 1993 「조선시기 사회사 자료의 수집과 정리」,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해준, 1999 「조선시대 충북의 인쇄문화-출판의 성격과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충북향토문화』 10.

이해준, 2002 「조선시대 지방인쇄문화의 성격-충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6·7합.